

김한중 장성군수, 새해 군민 소통 행보 '눈길'



김한중 장성군수가 장성군 11개 읍면을 방문해 군민과 소통하는 행사인 '군민과의 대화'를 성황리에 마쳤다. 17일 장성군에 따르면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계묘년 새해를 맞아 행복한 장성 만들기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군민과의 대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진원면을 시작으로 남면, 황룡면, 북일면, 삼서면,

11개 읍·면 '군민과의 대화' 행사 추진 '민·관 화합된 살기좋은 장성 만들 터'

서삼면, 동화면, 북이면, 북하면, 장성읍, 삼계면 순으로 방문이 이뤄졌다.

김 군수는 각 면 단위별로 주민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현장에서 즉각 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명쾌한 답변을 제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공식 일정 후에도 각 노인당을 찾아 불편 사항을 청취하기도 해 적극적인 소통 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는 김한중 군수를 비롯해 김희식 도의원, 정철 도의원, 박현숙 도의원, 차상현 군의원, 김연수 군의원, 최미화 군의원, 고재진 군의원, 나철원 군의원, 군 실과장, 사회단체장, 이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민 간의 사항으로는 ▲황룡강 주변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경로당 난방 도시가스화 전환 검토해달라 ▲우사, 돈사 한 곳에 모아

달라 ▲첨단3지구 개발 시 장성읍 공동화 우려...복안 있다. 장성읍사무소 이전 의사 있다 ▲장성읍 노인성질환 1천여명 등록 노인복지 신경써달라 ▲공무원들 잦은 인사이동 없어야 등 다양한 사안이 나왔다. 주민 간의 사항은 검토를 거친 뒤 군정에 반영될 계획이다.

김한중 군수는 "선거 후유증으로 편이 갈려선 안 된다"며 "장성군의 주인은 군민이다. 주민들께서 주민의식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공직자가 화합됨으로써 장성군 발전을 견인해 모범이 되는 선진 지자체를 만들겠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살기좋은 장성'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구례군, 친환경농업 실천 위한 유용미생물 연중 공급

6종 연간 500톤 생산·공급 예정

구례군은 올해에도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용방면에 소재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내의 유용미생물배양센터에서 EM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BM활성수 등 총 6종의 유용미생물을 연간 500톤 자체 생산하여 공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4,943농가에 560톤의 미생물을 공급하여 토양 환경 개선, 축사 악취저감 등 친환경 농업 실천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특히 노

후화된 장비 교체로 유용미생물 품질이 향상되었으며 자동 공급 시스템 도입으로 농가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유용미생물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군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 본인 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올해 유용미생물 교육은 2. 16.(목) 13시에 용방면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하반기에 1회 더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 780-2568로 하면 된다. 구례=박진호기자



담양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생활 속 규제 애로사항 청취,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

담양군은 현장 중심 규제개선 발걸을 위해 지난 13일 농업회의소 이사회에 참석해 농업 분야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이날 농업회의소 이사회에는 각 농업 분야의 대표들이 참석해 농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농업 분야 대표들은 그린벨트 및 용도지역 조정, 마을별 오·폐수관 설치기준 등과 관련하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민 생활 속 규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담양군은 농업회의소 이사회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 해당부서 검토를 거쳐 개선 가능한 사항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4월부터는 농업회의소와 함께 12개 읍·면 순회 간담회에 참석해 마을주민들과 소통하며 농업 분야의 규제 완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병노 군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의 현장 중심 운영으로 민생과 밀접한 규제들을 발굴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완화를 검토하되, 주민의 안전이나 권리를 위한 규제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규제를 개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화순군,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점검

화순군은 설 명절을 맞아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1월 27일 금요일까지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선물용 ▲주류 ▲제과류 ▲화장품류 ▲잡화류 (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이다.

군은 대상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간이 측정용



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제품의 제조회사에 전문기관 검사를 받도록 하여 최종 검사결과 과대 포장으로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순=박순철기자

'도전하는 청년이 아름답다' 나주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 선정 '상생기반대응형' 분야 사업 선정

나주시가 청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힘입어 청년들의 초기 창업 지원에 나선다.

나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신규사업부문에 선정돼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창업 지원을 목표로 청년들의 소득 안정, 창업에 따른 추가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둔다.

행안부는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3가지 분야에서 지자체 신청 사업을 선정했다.

나주시가 선정된 사업은 상생기반대응형 분야로 청년의 창업 초기 성장과 추가적인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창업 지원 사업이다.

올해 국비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억5600만 원을 투입, 올해 창업을 희망하는 10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내 만39세 이하 가업 2세 또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1년차에 시제품 제작, 공간 임차료 등 연간 1500만 원을 간접비용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2년차에는 지역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연간 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해 청년 상생 일자리를 발굴을 도모한다.

사업은 이번 달 참여자 공고·모집을 통한 1차 서류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갖고 2-3차 현장 모니터 및 선정 예정 컨설팅, 사업계획, 사업 수행계획 대비 성과를 평가해 오는 7월부터 간접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3월 17일까지 빛가람동에 위치한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나주시 그린로 369 3층)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나만의 아이템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꿈꾸고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의 생존율을 높여 지역경제와 청년이 동반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역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 해소와 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관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